

11. 단명의 왕들/무녕왕 479-506

11. 清寧 顯宗 仁賢 武烈

清寧天皇 卽位前紀 白髮...天皇 大泊瀨...天皇第三子也 母曰葛城韓媛 天皇生而白髮...大泊瀨天皇崩 吉備稚媛 陰謂幼子星川皇子曰 欲登天下之位 先取大藏之官...星川皇子... 遂取大藏官 鑰閉外門 式備于難 權勢自由 費用官物 於是 大伴室屋大連 言於東漢掬直曰 大泊瀨天皇之遺詔 今將至矣 宜從遺詔 奉皇太子 乃發軍士圍繞大藏 自外拒閉 縱火燔殺...是月 吉備上道臣等 聞朝作亂 思救其腹所生 星川皇子 率船師四十艘來浮於海 旣而聞被燔殺 自海而歸 天皇卽遣使 噴讓於上道臣等 而奪其所領山部 上503-505

清寧 元年 春正月 命有司 設壇場於磐余甕栗 陟天皇位 遂定宮焉 尊葛城韓媛爲皇太夫人 以大伴室屋大連爲大連 平群眞鳥大臣爲大臣 並如故 上505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諱牟大 文周王弟昆支之子 膽力過人 善射百發百中 三斤王薨 卽位 四年 春正月 拜眞老爲兵官佐平 兼知內外兵馬事 三下60

清寧 二年 春二月 天皇恨無子 乃遣大伴室屋大連於諸國 置白髮部舍人 白髮部膳夫 白髮部敦負 冀垂遺跡 令觀於後 冬十一月 依大嘗供奉

(1)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

야마토 왕국은, 7대왕 하쓰세(雄略)가 [재위 23년 만인] 479년에 서거한 이후, 507년에 12대왕 케이타이(繼體)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27년 간, 별로 특출하다고 볼 수 없는 네 명의 왕들이 잠깐씩 다스리게 되었다. 특히 한 것은, 3명이 자식이 없었고, 1명은 자식이 하나 뿐 이었다. 앞서 2대왕 사자키(仁德)가 [431년에] 서거한 후, [457년에] 하쓰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저 그런 네 명의 왕들이 잠깐씩 다스린 것과 유사한 것이다.

야마토 왕국 초기 140여년 기간 중 특출하다고 볼 수 있는 임금들은 시조 호무다[390-412년], 2대 사자키 [412- 431년], 7대 하쓰세[463-479년], 그리고 12대 케이타이(507- 531년) 등 네 명이다. 나머지 왕들은 대부분 재위기간도 지극히 짧았다.

479년에 하쓰세가 서거하자, (키비의 카미쓰미치 씨족 출신인) 와카히메 왕비는, 자기가 낳은 호시카하 왕자를 부추겨서, 왕위를 계승케 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아들에게, 천하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는, 조정의 관용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오호쿠라를 우선적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시카하 왕자는 모친 말대로 오호쿠라를 차지한 다음, 바깥문을 닫아걸고, 관용 재물을 제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태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던 (오호토모 씨족의) 무로야 대련은, 야마토 야야(東漢) 씨족의 쓰카 아타헤 에게, “이제야 말로 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우리들이 태자를 위해 일어나야 할 때 인 것 같다” 고 말을 했다. 그들은 군사를 동원해, 오호쿠라를 포위하고 불을 질러, 호시카하 왕자를 태워 죽였다. 야마토 왕국에서 야야 씨족의 역할이 막중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키비의 카미쓰미치 씨족의 오미 등은, 미카도(朝廷)에서의 분란 소식을 듣고, 호시카하 왕자를 도와줄 작정으로, 선박 40여 척을 이끌고 바닷길로 왔다. 하지만 이미 왕자가 불에 타 죽은 것을 알게 되자, 감히 상륙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시라가 태자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서, 사람을 보내 그들이 관할 하고 있는 야마베를 빼앗아 버렸다.

하쓰세의 셋째 아들인 시라가 왕자는, 카즈라키 씨족의 쓰부라 대신의 딸인 카라히메(韓媛, 訶良比賣)의 소생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가락이 모두 백발이었다.

480년, 시라가는 왕위에 올라,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위치한 이하레의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시라가의 시호는 세이네이 이다. 왕은 모친인 카라히메를 왕태부인(太夫人)으로 모셨다. 선왕 때와 마찬가지로, 무로야를 대련으로, 또 마토리를 대신으로 삼았다.

삼국사기를 본다. 백제 24대 동성왕은 곤지의 아들이며, 휘(이름)는 모대 이다. 담력이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 이었다. 삼근왕이 479년에 돌아가자 즉위하였다. 동성왕은 482년 봄 정월에, 진로(眞老)를 승진시켜 병관 좌평으로 삼고, 내외 병마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481년, 세이네이는 왕후도 없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후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미나시로(御名代)로서 시라가 베를 정했다. 대련을 지방으로 보내 시라가 베의 토네리(舍人), 카시하데(膳夫), 유케히(靱負)등을 만들어, 후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했다.

(2) 오후케 와 오케의 발견

야마베 씨족의 조상인 (쿠메 베의) 오다테 가 하리마 지방에 파견되었을 때, 일직이 하쓰세 왕에게 살해되었던 오시하 왕자의 두 아들, 오후케 와 오케 가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다테는 즉시 궁전을 지어 두 왕자의 거

之料 遣於播磨國司 山部連先祖伊豫來目部小楠 於赤石郡縮見屯倉首忍海部造細目新室 見市邊押磐皇子子億計 弘計 畏敬兼抱 思奉爲君奉養甚謹 以私供給 便起柴宮 權奉安置 乘驛馳奏 天皇愕然驚歎... 將左右舍人 至赤石奉迎 上505-507

顯宗 卽位前紀 五年春正月 白髮天皇崩 是月 皇太子億計王與天皇讓位 久而不處 由是 天皇妹飯豐青皇女 於忍海角刺宮 臨朝秉政 自稱忍海飯豐青尊...冬十一月 飯豐青尊崩 上515

履中 元年 立...黑媛爲皇妃 妃生磐坂市邊押羽皇子 御馬皇子 青海皇女 一曰 飯豐皇女 次妃幡後皇女 生中磯皇女 上425

伊邪本...娶... 黑比賣命 生御子 市邊之忍齒王 次御馬王 次妹青海皇女 亦名飯豐郎女 三柱 古282

白髮...坐伊波禮之甕栗宮 治天下也 此天皇 無皇后 亦無御子 故 御名代定白髮部 故 天皇崩後 無可治天下之王也 於是問日繼所知之王 市邊忍齒別王之妹 忍海郎女 亦名飯豐王 坐葛城忍海之高木角刺宮也 古322

雄略 元年春三月 立草香幡後姬皇女爲皇后 是月 立三妃 元妃葛城國大臣女曰韓媛 生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與稚足姬皇女 是皇女侍伊勢大神祠 次有吉備上道臣女稚姬 生二男 長曰磐城皇子 少曰星川稚宮皇子 次有春日日和珥臣深目女 曰童女君 生春日大娘皇女 上461

大長谷若建命...天皇 娶大日下王之
妹 若日下部王 无子 又娶都夫良意
富美之女 韓比賣 生御子 白髮命
次妹若帶比賣命 二柱 下306

顯宗 元年 春正月 大臣大連等奏言
皇太子億計...奉讓天下 陛下正統...
皇太子推讓... 宜奉兄命 承統大業
制曰 可 乃召公卿百寮於近飛鳥八
鈞宮 卽位天下 上519

<각주 11-1>

일본서기는 “천황의 누이동생” (오시누미) 이히도요 아오 가 임시로 조정을 이끌어 갔다고 했다. 여기서 천황이란 세이네이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일본서기는, 이자호 왕이 이찌노베 오시하 왕자, 미마 왕자, 아오미 (이히도요) 공주, 나까시 공주를 낳았다고 했다. 일본서기의 기록 자체가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고사기는, 세이네이가 죽자, 이찌노베 오시하의 누이동생 오시누미(이히도요)가 임시로 조정을 이끌어 갔다고 했다. 고사기는 이에 앞서, 이자호 왕은 이찌노베 오시하 왕자, 미마 왕자, 아오미(이히도요) 공주를 낳았다고 했다. 일본서기와 달리, 고사기의 기록은 앞뒤가 일관성이 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세이네이가 죽은 다음에 조정을 임시로 맡은 사람은, 고사기 말대로, 하쓰세 손에 살해된 이찌노베 오시하의 누이동생이며, (오호케 와 오케 형제를 비롯해서) 세이네이 왕의 고모 벌인 이히토요 라고 생각된다. 일본서기가 말하는 세이네이의 누이동생은 아닌 것 같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예시하기 위해, 내가

처를 옮기게 하고, 극진하게 받들어 모셨다. 조치를 마치자, 곧바로 역마를 타고 귀경을 해, 세이네이 왕에게 보고를 했다.

세이네이는 놀라 한탄을 하며, 두 왕자의 기구한 운명을 가여워 했다. 그리고서는 “아름다운 지고, 기쁜 지고, 하늘이 크게 은혜를 내려 내게 두 아들을 준 것 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다테를 보내, 두 왕자를 모셔오게 했다. 세이네이는 형 오호케를 태자로, 동생 오케를 왕자로 삼았다.

484년 정월, 8대왕 세이네이가 재위 4년 만에 서거했다. 고사기에 의하면, 3대왕 이자호의 딸이며 오시하 왕자의 누이동생인 이히도요 가, 그 해 11월에 그녀가 죽기까지 거의 10여 개월 동안, 쓰노사시 궁에서, 임시로 조정을 이끌어 갔다. 왕위가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었던 것이다. 세이네이에서 오호케-오케 형제로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록할 수 없는 곡절들이 많았던 것 같다. <주11-1>

485년, 일본서기에 의하면, 오호케 와 오케 두 형제가 서로 왕위를 사양하다가, 마침내 동생 오케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쿠메 베의 오다테는, 오케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대로 야마 쓰카사(山官)로 임명이 되었고, 야마베 무라지라는 카바네(姓)를 하사받았다. 왕은 그로 하여금 키비 오미를 휘하에 거느리게 하고, 또 야마모리 베를 그의 카키(民)로 만들어 주었다. 오케의 시호는 켄조오 이다. <주11-2>

오다테가 시골구석에 숨어있는 오케 형제를 발견해서 세이네이 왕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안 했다면, 그들 형제들은 평생을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켄조오 왕은 오다테에게 후하게 보답하여 은혜를 갚고, 극진히 총애를 했다. 반면, 일찍이 켄조오 왕의 부친이 살해될 때, 하쓰세 왕과 살해 모의를 한 (사사키야마 씨족의) 키미 카라부쿠로는, 능직이 겸 산직이 노릇을 하게하고, 장적(籍帳)에서 삭제를 하는 한편, 오다테의 야마베에 예속시켰다.

487년, 켄조오 왕이 재위 2년 만에 서거했다. 그 해, 키 씨족의 오히하 라는 자가 미마나에 근거를 만들어 관

부(官府)를 세우고, 스스로 신성(神聖)을 주장했다. 그는 고구려와 내통을 하면서 삼한의 왕이 되어보려 했다. 그는 미마나의 좌로, 나기, 타갑배 등의 계책을 받아들여, 이림 에서 백제 왕세자 막이해를 살해했다. 또 대산성을 축조하여 동쪽 도로를 가로막고, 양곡이 운반되는 항구를 차단시켰다.

오히하의 처사를 보고 백제왕은 크게 노하여, 령군(領軍) 고이해 와 내두 막고해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대산을 공격하게 했다. 오히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으나 병력과 기력이 소진되어, 일이 뜻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마나 에서 돌아왔다. 백제는 좌로, 나기, 타갑배 등 300여명을 죽여 버렸다.

켄조오 왕 역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형인 오호케 왕자가 488년에 왕위에 올랐다. 시호가 닌켄인 오호케는, (오늘날의 나라현 텐리시에 위치했던) 이소노카미에 도움을 잡았다. 닌켄 왕은 하츠세 왕의 딸인 카스가를 왕후로 맞이해, 타시라가 공주와 오하츠세 왕자를 낳았다.

(3) 요서, 진평 의 백제군

삼국사기는 동성왕 10년인 488년에, 북위(386-534년)가 군대를 동원하여 [요서의 진평 땅에 위치한 백제군을] 침공했으나, 백제군사에게 패하여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갔다고 기록을 했다. 자치통감 영명6년(488년) 조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남제서는 양 나라의 소자현(簫子顯)이 편찬한 남제(479-502년)의 정사이다. 이 남제서에 의하면, 백제의 동성왕은 490년에 남제 조정에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렸다: “영식장군 면중왕 저근은 정치를 두루 잘 보좌하였고, 또 크게 무공을 세웠으므로, 가행(假行) 관군장군 도한왕 이라 하였고, 건위장군 팔중후 여고는 젊었을 때부터 공적이 컸으므로 가행 영식장군 아착왕이라 하였고, 건위장군 여력은 문무가 함께 뛰어나 가행 용양장군 매로왕 이라 하였으며, 광무장군 여고는 국정을 빛냈으므로 가행 건위장군 불사후라 하였습니

분석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주11-2>

시호가 켄조오인 오케는, 치카쓰 아스카(近飛鳥)의 “야쓰리” 궁에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그런데 “야쓰리”란 카와찌(河內)의 (치카쓰) 아스카가 아니라, 야마토의 (토호쓰) 아스카, 즉 오늘날의 나라현의 타케치 (타카이치)군 아스카 촌(明日香村)에 있는 지명이다. 기록상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顯宗 元年 夏四月 夫前播磨國司來目部小楠 求迎攀朕... 乃拜山官 改賜姓山部連氏 以吉備臣爲副 以山守部爲民... 酬恩答厚 寵愛殊絕 ... 五月 狹狹城山君韓倂宿禰 事連謀殺皇子押磐... 充陵戶兼守山 創除籍帳 隸山部連 上521

顯宗 三年 夏四月 天皇崩于八鈞宮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 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上525-527

伊蒙本別王御子 市邊忍齒王御子 袁禰之石巢別命 坐近飛鳥宮 治天下... 娶石木王之女 難波王 无子也 古328

仁賢 元年 春正月 皇太子 於石上

廣高宮 卽天皇位 二月 立前妃春日大娘皇女爲皇后 春日大娘皇女 大泊瀨天皇 娶... 童女君所生也 遂產一男六女...其三曰手白香皇女... 其五曰橘皇女 其六曰小泊瀨稚鶴鶴天皇...其七曰...次和珥臣日爪女... 生一女 上527-529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十年 魏遣兵來伐 爲我所敗 三下60

資治通鑑 齊紀 武帝 永明六年 十二月... 魏遣兵擊百濟 爲百濟所敗...晉世句麗略有遼東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也 二1159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蠻 東南夷 東夷 百濟國...假行寧朔將軍臣姐瑾等四人 振竭忠効...聽除所假 寧朔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竝列 今假行冠軍將軍 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弱冠輔佐 忠効夙著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効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牟大又表曰 臣所遣行建威將軍 廣陽太守兼長史 臣高達 行建威將軍 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臣會邁等三人 志行清亮 忠款夙著 往泰始中 比使宋朝 今任臣使 冒涉波險 尋其至効 宜在進爵 謹依先例 各假行職...伏願天監特除除正 達邊効夙著 勤勞公務 今假行龍驤將軍帶方太守 茂志行清壹 公務不廢 今假行行建威將軍廣陵太守 邁執志周密 屢致勤効 今假行行廣武將軍清河太守 詔可 竝賜軍號 除太守 爲使持

다. 이들 가행 영삭장군 저근 등 4인은 나라의 환란을 일소시켰으니, 임시로 내린 관직을 이제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 남제서의 기록을 보면, 백제의 “대왕-왕” 제도는, 5세기 후반에 와서, 부여씨를 가진 왕족뿐만 아니라, 크게 공을 세운 귀족들에게도 왕(소왕, 후왕)의 칭호를 부여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동성왕은 또 표문을 올려, “이번에 파견한 행 건위장군 광양태수 겸 장사(長史) 고달과, 조선태수 겸 사마 양무와, 행 선위장군 겸 참군 회매 등 3인은, 지난 태시(泰始) 연간(465-471년), 함께 송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갔었고, 지금 또 사신의 임무를 맡아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으므로, 각자 가행 직을 내려 주었으니, 이제 정식으로 관작을 제수 해 주십시오. 달(達)은 변경에서의 공적이 뚜렷하여 이제 가행 용양장군 대방태수라 하였고, 무(茂)는,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므로 가행 건위장군 광능태수라 하였으며, 매(邁)는 훌륭한 근무성과를 올렸으므로 이제 가행 광무장군 청하 태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 남제 조정은 이를 모두 허락한다는 조서를 내리면서, 장군 등의 호(號)를 하사해주고, 태수 등의 관직을 제수 해 주었다. 이 모두가 남제서의 기록이다.

남제는 또한 사신을 보내, 동성왕을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으로 삼아, 그의 조부인 모도(牟都, 문주왕?)의 작위를 계승케 했다. 남제서는, 그 해(490년)에 북위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요서의 백제군을] 침공하니, 모대(동성왕)가 장군 사법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등을 파견해, 북위 군사를 기습 공격하여 대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남제서에 나타나는 조선성, 대방성, 낙랑, 광양, 광능, 청하 등의 지역은, 당시 발해만 연안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는, 요서의 내륙 지방이다. 백제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북위와 여러 차례 전투를 하고, 그 때마다 전공을 세운 장군들을 그 지역의 태수로 임명하는 동시에, 남제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일찍이 송서는 백제가 요동의 동쪽 1천여 리 밖에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요서를 차지해서 진평군의 진평현을 통치했다고 기록을 했다. 양서, 남제서, 자치통감(영명6년 조) 등은 모두, 백제가 진 나라(317-420년) 때 요서, 진평 2개 군을 점거해서 백제군을 설치했다고 기록했다.

양 직공도를 보면, 동진 말년에 백제가 요서에 진출을 한 것 같고, 자치통감 진기(晉紀) 목제(穆帝) 영화2년 기록을 보면, 근초고왕 원년(346년) 이전에 진출을 한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간에, 자치통감 영명6년 조, 남제서, 삼국사기 등에 나오는 북위와의 충돌 기록을 보면, 동성왕 치세 기간(479-501년) 까지도 백제가 계속 요서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김부식을 비롯해 중화 사대사상에 얽매인 사학자들은, 백제가 요하 서쪽의 땅을 공략해서 백제군을 설치했다는 그 많은 기록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감히 그 내용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삼국사기는, 북위가 불가사의하게도 장수왕 통치하의 고구려를 뛰어 넘어, 마치 한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백제 본토를 공격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아홉 글자(魏遣兵來伐 爲我所敗)를 거두절미 해 삽입하고 그만 둔 것이다.

최치원은 858년경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태어나, 874년에 당 나라에서 과거급제를 하여 벼슬을 했던 유명한 문인이다. 삼국사기는 최치원이 쓴 문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 한다: “고구려, 백제가 그 전성시기였을 때에는 강병이 100만에 달해, 남으로는 오 나라와 월 나라를 침공하고, 북으로는 유 나라, 연 나라, 제 나라, 노 나라의 지역을 흔들어서, 중국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었다.”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소위 “논리적인 추리” 라는 것을 전개한다. 흥미 있는 현상은, 자치통감의 영명 6년(488년) 조, 남제서의 영명 8년 조, 백제본기 동성왕 10년(488년) 조를 다루게 될 때, 그들의 병적인 상상력과 궤변이 극치에 달한다는 것이다.

백제에서의 동성왕 재위 23년(479-501년), 무녕왕

節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 使兼謁者僕射孫副策命大襲亡祖父牟都爲百濟王...是歲 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 入其界 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 解禮昆 木干那率衆襲擊虜軍 大破之 建武二年 牟大遣使上表曰... 去庚午年 獫狁弗悛 舉兵深逼 臣遣沙法名等領軍逆討 宵襲震擊 匈梨張惶 崩若解蕩 乘奔追斬 僵尸丹野 由是摧其銳氣 鯨暴韜凶 今邦宇謐靜 實名等之略 尋其功勳 宜在褒顯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 中416-417

宋書卷九十七 列傳第五十七夷蠻 東夷 百濟國 百濟國 本與高麗俱在遼東之東千與里 其後高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

梁書卷五十七 列傳第四十八諸夷 東夷 百濟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餘家 小國萬餘家 總十餘萬戶 百濟卽其一也 後漸強大 兼諸小國 其國本與高麗在遼東之東 晉世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 晉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梁 職貢圖 百濟國使 百濟舊來夷馬韓之屬 晉末駒麗 有遼東 樂浪 亦有遼西晉平縣 李弘植 401

資治通鑑 晉紀 穆帝 永和二年 春正月... 初 夫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近燕 而不設備 燕王皝 遣世子儁 帥慕容軍 慕容恪 慕容根三將軍 萬七千騎 襲夫餘 二 830

三國史記 卷 第四十六 列傳 第六
崔致遠 ... 高麗百濟全盛之時 強兵
百萬 南侵吳越 北撓幽燕齊魯 爲中
國巨蠹 三下359

仁賢 三年 春二月 置石上部舍人
上529

仁賢 六年 秋九月 遣日鷹吉士 使
高麗 召巧手者...是歲 日鷹吉士 還
自高麗 獻工匠須流枳 奴流枳等 今
大倭國山邊郡額田邑 熟皮高麗 是其
後也 上529-533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蠻 東南夷 東夷 百濟國... 是歲 魏
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 入其界 牟
大遣將沙法名 贊首流 解禮昆 木干
那率衆襲擊虜軍 大破之 建武二年
牟大遣使上表曰...去庚午年 狻狷弗
悛 舉兵深逼 臣遣沙法名等領軍逆
討 宵襲霆擊 匈梨張惶 崩若解蕩
乘奔追斬 僵尸丹野 由是摧其銳氣
鯨暴韜凶 今邦宇謐靜 實名等之略
尋其功勳 宜在褒顯 今假沙法名行
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爲行安國將
軍辟中王 解禮昆爲行武威將軍 弗
中侯 木干那前有軍功 又拔臺舫 爲
行廣威將軍 面中侯 伏願天恩特愍
聽除 又表曰 臣所遣行龍驤將軍 樂
浪太守兼長史慕遣 行建武將軍 城
陽太守兼司馬臣王茂 兼參軍 行振
武將軍 朝鮮太守臣張塞 行揚武將
軍陳明 在官忘私 唯公是務 見危授
命 蹈難弗顧 今任臣使 冒涉波險
盡其至誠 實宜進爵 各假行署 伏願
聖朝特賜除正 詔可 竝賜軍號 中
416-417

재위 23년(501-523년), 성왕 재위 32년(523-554년) 등 도
합 75년이 넘는 이 기간은, 일찍이 4세기 중반의 백제 전성
기를 다시 한번 재현한 시기였다. 우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요절을 한 왕이 없는 것이다. 당시 중국 대륙은, 아직도 수와
당의 천하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혼란의 시대였다.

백제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 재위 45년(554-598
년), 무왕 재위 42년(600-641년), 의자왕 재위 20년(641-
660년) 기간도 결코 백제의 쇠퇴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단지
백제 위덕왕 재위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수나라(581-618
년)가 참으로 오랜만에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또 당 나라가
그 뒤를 계승하여,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급변했을 뿐이다.
즉 백제의 힘이 절대적으로 쇠퇴 하였다 기 보다는, 통일된
중국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490년, 이소노카미 베의 토네리가 설치되었다.

493년, 히타카 키시를 고구려로 보내 숙련 기술자를
구해 오도록 했다. 그 해 말, 히타카는 공장(工匠) 수류지와
노류지를 데리고 왔다. 야마토의 누카타 읍의 고구려 숙련
피혁공 들이,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다.

(4) 백제의 소왕(후왕) 제도

남제서에 의하면, 백제 동성왕은 495년에 또 사신을
남제 조정에게 보내 표를 올렸다. 북위의 침략을 물리친 사법
명을 가행 정로장군 매라왕으로, 찬수류를 가행 안국장군 벽
중왕으로, 해례곤을 가행 무위장군 불중후로 삼았고, 목간나
는 과거 전투에서 세운 공이 있는 데다 이번에도 성문과
“선박”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행 광위장군 면중후로 삼았
으니, 정식으로 관작을 제수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기록을 보면, 크게 공을 세운 (부여 성씨의 왕족
이 아닌) 귀족들이 대거 소왕과 후왕의 칭호를 받는 것이다.

동성왕은 또 다시 표를 올려, 사신으로 보낸 행 용
양장군 낙량태수 겸 장사 모견과, 행 건무장군 성양태수 겸
사마 왕무와, 참군 행 진무장군 조선태수 장색과, 행 양무장

군 진명 등에게, 정식으로 관직을 제수 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제 조정은 조서를 내려 이를 모두 허락해 주고, 장군의 칭호들을 수여 해 주었다. 모두 남제서의 기록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497년, 병관좌평 진로가 죽자, 동성왕은 달솔 연들을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5) 왕위 찬탈 음모

498년, 닌켄왕이 서거했을 때, 대신인 (해구리 씨족의) 마토리 오미는 국정을 제멋대로 처리하면서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그는 오하츠세 왕자를 위해 궁전을 짓는다 해놓고서는, 완공이 되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살았다. 매사에 교만했고, 신하의 도리는 아예 무시해 버렸다. 마토리의 아들 태자가 결혼을 하려는 여인을 가로채서 먼저 범했다. 부자가 모두 안하무인이었다.

(오호토모 씨족의) 카나무라 무라지는 오하츠세 태자에게, “이 마토리 도적을 쳐 부셔야 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자를 무찌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태자는 “천하의 대란이 생길 텐데 뛰어난 인물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자네가 바로 책임자 인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즉시 계책을 세웠다.

얼마 후, 카나무라는 스스로 병사들을 지휘해서 마토리의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마토리와 그 아들들은 모두 살해되었다. 카나무라는 적들을 다 평정하고 나서, (자신이 잠시 장악을 했던) 정권을 태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일본 땅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라면서, 태자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청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단명의 왕들이 계속되면서 야마토 왕조가 상당한 시련기에 봉착했고, 왕권의 쇠퇴는 급기야 실세를 장악한 대신으로 하여금 감히 왕권 찬탈까지 꿈꿀 수 있게 만든 것 같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99년에 오하츠세가 비로소 즉위할 수 있었다. 오하츠세의 시호는 부레츠 이다. 왕권을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十九年 兵官佐平眞路 卒 拜達率燕突爲兵官佐平 三61

武烈 卽位前紀 億計天皇崩 大臣平 群眞鳥臣 專擅國政 欲王日本 陽爲 太子營宮 了卽自居 觸事驕慢 都無 臣節 於是 太子思欲聘物部鹿火大 連女影媛... 眞鳥大臣男... 悉覺父 子無敬之狀 ... 大伴金村連謂太子曰 眞鳥賊 可擊 請討之 太子曰 天下 將亂 非希世之雄 不能濟也 能安之 者 其在連乎 卽興定謀 於是 大伴 大連 率兵自將 圍大臣宅 縱火燔 之... 遂被殺戮 及其子弟... 大伴金村 連 平定賊訖 反政太子 請上尊號曰 今億計天皇子 唯有陛下... 日本必有 主... 於是 太子命有司 設壇於泊瀨 列城 陟天皇位 遂定都焉 是日 以 大伴金村連爲大連 下9-15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二十一年 夏 大旱 民
 饑相食 盜賊多起 臣寮請發倉賑救
 王不請... 二十二年 春 起臨流閣於
 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 王與
 左右宴臨流閣 終夜極歡 二十三年
 十一月... 八月 築加林城 以衛士佐
 平苗加鎮之... 加不欲往 辭以疾 於
 不許 是以怨王 至是 使人刺王 ...
 武寧王 諱斯摩 或云隆 牟大王之第
 二子也 身長八尺 眉目如畫 仁慈寬
 厚 民心歸附 牟大在位二十三年薨
 卽位 三下61

武烈 三年 十一月 百濟意多郎卒
 葬於高田丘上...是歲 百濟末多王無
 道 暴虐百姓 國人遂除 而立嶋王
 是爲武寧王 百濟新撰云 末多王無
 道 暴虐百姓 國人共除 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則末多
 王異母兄也 琨支向倭 時至筑紫嶋
 生斯麻王 自嶋還送 不至於京 產於
 嶋 故因名焉 今各羅海中有主嶋 王
 所產嶋 故百濟人號爲主嶋 今案 嶋
 王是蓋鹵王之子也 末多王 是琨支
 王之子也 此曰異母兄 未祥也 下15

隅田八幡神社 人物畫像鏡 銘文 癸
 未年八月日十 大王年 男弟王在意
 紫沙加宮時 斯麻念長壽 遣開中費
 直穢人今州利二人等 取白上銅二百
 早作此鏡

수호해 준 카나무라는 대련이 되었다. 부레츠 왕은 (오늘날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위치한) 하쓰세 라는 장소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6) 백제 무녕(사마)왕과 인물화상경

삼국사기를 본다. 동성왕 21년(499년), 전국이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하지만 왕은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기를 거부했다. 500년, 동성왕은 궁성 동쪽에 높이가 5장이나 되는 임류각을 세우고, 밤새도록 연회를 열면서 즐겼다. 또 못을 파고 진기한 짐승들을 길렀다. 501년, 가림성을 쌓고 좌평 백가에게 수비토록 명했다. 백가는, 왕을 원망하며,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살해했다.

백제 25대 무녕왕(501-523년)의 휘는 사마 혹은 응이라 하며, (일본서기에 의하면) 개로왕(455-475년)의 아들이다. 신장이 8척이요, 눈썹과 눈이 그림과 같고, 성품이 인자, 관후하니, 민심이 스스로 복종하였다. 동성왕이 501년에 자객의 칼을 맞고 돌아가자, 나이 40에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는 그를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라 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기록이다.

501년, 백제의 의다량이 죽었는데, 타카타 언덕 위에 장사를 지냈다.

와카야마의 스다하찌만(隅田八幡) 신사는, 직경이 22센티이며 9명의 인물이 새겨진 청동 거울을 보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51년에, 이 인물화상경을 국보로 지정하고, 동경 국립박물관에 보관토록 했다. 이 동경 가장자리에는, “대왕년, 계미년(503년) 8월 10일, 사마(斯麻)는 오시사카(意紫沙加, 忍坂) 궁에 거처하고 있는 남동생 왕의 장수를 염원하여, 개중 비직 과 예인 금주리 2인등을 시켜, 양질의 백동 200한을 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도록 했다” 라는 48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제왕(男弟王)은 부레츠(499-506년)를 의미 할 것이다.

남동생이라는 표현은 삼국지 위서의 왜인전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히미꼬 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국정을 도와주었다(有男弟佐治國)” 라는 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는, 백제 개로왕이 461년에, “형 왕으로서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以脩兄王之好) 곤지군(昆支君)을 야마토로 [유우라쿠에게] 보냈다” 라는 백제신찬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와카야마 인물화상경의 명문은, 한자의 “거울 경” 자(鏡) 대신에 “마침내 경” 자(竟)를 사용했다. 이는 두 글자가 모두 다 “경” (중국말로로는 “징”)이라고 발음되기 때문일 것이다. 무녕왕 자신의 능에서 출토된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 하나와 네 마리의 달리는 형태의 짐승을 조각한) 동경에서도 “거울을 만들었다” 라는 표현(尙方作竟眞大好)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거울 경 자 대신에, 마침내 경 자가 사용되었다.

504년, 백제는 마나군을 야마토 조정에 보냈다.

505년, 백제 무녕왕은 사아군을 보내면서, “전년도에 보낸 마나군은 백제왕의 골족이 아니므로 이제 사아군을 보내니(謹遣) 그로 하여금 야마토 조정에서 일을 돕도록 하라(奉事於朝)” 고 말했다. 이 (무녕왕의 골족인) 사아군의 아들이 호후키시 인데, 그가 바로 야마토 키미의 선조가 된다.

(7) 하쓰세-사자키-부레츠(仁德-雄略-武烈)

506년에 부레츠 왕이 서거했다. 일찍이 부레츠는 왕위를 계승할 자식을 낳지 못하자, 후사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전할까하며 걱정을 했다. 마침내, 옛 부터의 사례에 비추어, 오하쓰세 라는 명칭의 베를 설치하여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고 만세에 기억시키도록 (504년에) 조치를 했다.

일본서기는 부레츠를 천하에 둘도 없이 잔혹한 폭군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즉, 여자를 발가벗겨 판자 위에 앉혀놓고, 말을 끌어다가 교접을 시켰다. 그리고는 여자의 음부를 검사해서 젖어 있는 자는 죽여 버리고, 젖지 않은 자는

武烈 六年 秋九月 詔曰 傳國之機 立子爲貴 朕無繼嗣 何以傳名 且依 天皇舊例 置小泊瀨舍人 使爲代號 萬歲難忘者也 冬十月 百濟國遣麻 那君進調 ... 七年 夏四月 百濟王 遣斯我君進調 別表曰 前進調使麻 那者 非百濟國主骨族也 故謹遣斯 我 奉事於朝 遂有子 曰法師君 是 倭君之先也 下17

武烈 八年 春三月 使女裸形 坐平 板上 牽馬就前遊牝 觀女不淨 沾濕

者殺 不濕者沒爲官婢 以此爲樂 及此時 窄池起苑 以盛禽獸 ... 食美而忘天下之飢 大進侏儒倡優 爲爛漫之樂 設奇偉之戲 縱靡靡之聲 日夜常與宮人沈湎于酒 以錦繡爲席衣以綾紈者衆 下17

武烈 二年 割孕婦之腹 而觀其胎 三年 解人指甲 使掘署預 七年 使人昇樹 以弓射墜而啖 下15-17

관비로 삼으면서 즐겼다. 천하가 굶주리는데, 난쟁이와 소리꾼들을 모아서 음란한 소리와 가무를 하게 하고, 주야로 술과 여색에 빠져 세월을 보냈다. 못을 파고, 동산을 만들고, 새와 짐승을 가득히 모았다. 비단으로 방석을 만들어 깔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볍고 무늬가 고운 비단을 입도록 했다. 사람을 나무 위에 오르게 한 다음, 활을 쏘아 떨어뜨리고 즐거워했다. 임신한 부인의 배를 갈라 태를 꺼내 보았다. 사람의 손톱을 뽑아 놓고서 산에 가서 마를 캐게 했다.

이 대목에서, 일본서기는 백제신찬(百濟新撰)을 인용한다: “말다왕(동성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했다. 나라 사람들이 함께 왕을 제거하고 무녕왕을 세웠다. 휘는 사마왕 이다. 그는 곧지 왕자의 (실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즉 말다왕의 배다른 형이다. 곧지가 야마토를 향해 가는 도중, 축자도에 이르렀을 때, 사마왕이 태어났다. 섬으로부터 (백제로) 송환되었다. 수도(야마토)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섬(시마, 사마)에서 낳았다하여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지금 각라해 가운데, ‘주인의 섬’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이 바로 왕이 출생한 섬이다. 이 때문에 백제 사람들은 그 섬을 주도라 부른다. 이제 생각을 해 보니 섬 (시마)왕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말다왕(동성왕)은 곧지왕의 아들이다. 이를 놓고 배다른 형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대 한국어의 “섬”은 고대 일본어의 “시마”에 해당한다.

일본서기는 부레츠를 아주 못된 왕으로 기록을 하게 되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꾸지게 동성왕도 무도하여 백성들한테 포악한 짓을 하였다고 기록을 한 것 같다.

고사기는 [11대] 부레츠 왕의 이름을 “오” 하츠세 “와카” 사자키(小長谷 若雀)라고 기록했다. [2대] 닌토쿠(仁德)왕의 이름은 “오호” 사자키(大雀)이고, [7대] 유랴쿠(雄略)왕의 이름은 “오호” 하츠세(大長谷)이다.

일본서기는 부레츠의 이름을 “오” 하츠세 “와카” 사자키(小泊瀬稚鷓鴣)라고 표기했다. [2대왕] 닌토쿠의 이름은 “오호” 사자키(大鷓鴣)라고 표기했고, [7대왕] 하츠세의 이름은 “오호” 하츠세(大泊瀬)라고 표기했다.

우리는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11대 왕의 이름을 만

들기 위해, [2대와 7대] 두 명의 왕들의 이름을 합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이들 [2대와 7대] 왕에게 사용한 큰 대(大)라는 글자를, 11대 왕에게는 작을 소(小), 젊을 약(若) 혹은 어릴 치(稚)로 바꾸었다. 닌토쿠-유라쿠 계통이 [11대 왕] 부레츠를 끝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호무다-케이타이 계통이 왕위를 계승한 다는 것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강조한 것 같다. 일부 사학자들은 케이타이가 새로운 왕조의 시조이었다고 주장을 한다. 즉 호무다의 야마토 왕국은 부레츠로 끝이 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Chapter 12 begins at 315.